



중 외 학 술 복 지 재 단

JW Foundation

수 신 : 기관장(단체장)

참 조 :

제 목 : 「제4회 성천상」 후보자 추천 의뢰 요청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2012년 생명존중의 정신을 전파하고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성천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성천상」은 국적과 민족을 초월하여 국내외에서 질병과 빈곤으로부터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인술(仁術)을 펼쳐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업적을 이룩한 의료인을 추천받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시상합니다.

지난해 가져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훌륭한 분이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제4회 「성천상」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자 공문을 드립니다.

부상으로 1억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성천상」 후보자의 추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성천상 추천 후보마감이 이 달 말일(2016. 3. 31)까지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 임 1. 제4회 「성천상」 후보자 추천 안내 1부(추천서 양식 포함)
2. 제1~3회 성천상 수상자 언론보도자료 / 끝.

재단법인 중외학술복지재단 이사장
(직인생략)

담 당 안옥선 사무국장 권윤희 성천상위원장 이성낙 이사장 이종호
시 행 JWF 2016-005 (2016. 3. 7) 접 수 (2016 .)
우 06725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77 (서초동, JW타워)
Tel (02)840-6941 Fax (02)841-1213 E-mail jwf1@daum.net

제4회 성 천 상

THE 2016 SEONGCHEON PRIZE

| 주최 : 중외학술복지재단 | 주관 : 성천상위원회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참 의료인을 찾습니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은 2012년 생명존중의 정신을 전파하고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성천상을 제정했습니다.

본 상은 국적과 민족을 초월하여 국내외에서 질병과 빈곤으로부터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인술을 펼쳐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업적을 이룩한 의료인을 추천받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시상합니다.

부상으로 1억원이 주어지는 성천상 후보자 추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은 2011년 JW중외그룹 이종호 회장께서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생명존중의 정신을 계승, 전파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합창단
지원사업

성천상
시상사업

찾아가는
음악회 등
메세나 활동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JW
Art Award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



- I. 수상 자격 제4회 성천상 후보자 요건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의료봉사 업적을 이룩한 의료인
 - 의료봉사 업적이 현저하여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의료인
 - 추천마감일(2016. 3. 31) 현재 생존해 있는 의료인

- II. 심사 기준 성천상 수상자의 심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고의 원칙으로 의료계의 존경받는 인사들로 구성된 성천상위원회를 통해, 다음의 항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로 이루어집니다.

업 적 도	의료봉사의 실적 정도, 업적 수준, 지속 기간
기 여 도	의료복지 향상, 사회발전 기여도
난 이 도	업적 달성을 위한 열악한 환경조건, 오지, 음지 정도
평 판 도	의료계 및 사회복지 종사자 집단의 평판 및 지지 정도
기대효과	수상에 따른 사회공헌 확대 효과 정도
성 장 성	수상에 따른 수상자 역량 발전 가능성

- III. 시상 성천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억원이 수여됩니다.

IV. 심사 일정

2015년 11~12월	2016년 3월 31일	2016년 4~6월	2016년 7~8월
제4회 성천상후보자 추천 요청서 발송	추천서 제출 마감	서류·현장·종합심사	발표 및 시상식

V. 추천서 제출

- 제출 서류
 - 1) 추천서 (※양식 : 홈페이지(www.jwfoundation.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2) 업적 증빙 자료 (※우편 접수 가능)
- 제출 방법 : 한글로 작성하여 e-mail로 제출(jwf1@daum.net)
- 문의사항 : 중외학술복지재단 사무국 (T:02-840-6941)
- * 성천상 심사는 '추천서'가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추천서 양식)

【 제 4 회 성 천 상 추 천 서 】

수 상 후 보 자	성 명	한 글		한 자	
		영 문		생년월일	
	소속기관	(직위)			
	주 소	직 장			
		자 택			
	연 락 처	직장전화		핸드폰	
자택전화			e-mail		
업적요지	※ 작성 요령 - 업적요약 : 3줄 내외 - 업적의 구체적 내용 : 10줄 내외 - 업적의 사회적 파급효과 등: 3줄 내외				
상기와 같이 제4회 성천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소속/직위 : 연락처(주소/Tel/e-mail) : 추천인(기관장) : (서명) 중외학술복지재단 이사장 귀 하					

1. 수상후보자 주요 인적사항

가. 학력 사항 (대학교 이상만 기재)

기 간	학 교 명	전공 및 학위

나. 경력 사항 (해외 체재기간을 포함하여 월별로 정확히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기 간	기관명(직위, 직책, 담당분야 등)

다. 수상 실적 (정확히 기재요망)

일 자	수 상 내 용	시 상 기 관

2. 업적 내용

- ※ 1) 의료봉사 업적에 대하여 **봉사대상, 내용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기입하십시오.
- 2) 특별한 양식없이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2~3페이지 내외)
- 3)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언론보도자료 등)가 있는 경우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예 시>

1. 의료봉사업적 A

- 가. 봉사대상
- 나. 봉사내용
- 다. 사회적 파급효과

2. 의료봉사업적 B

- 가. 봉사대상
- 나. 봉사내용
- 다. 사회적 파급효과

3. 의료봉사업적 C

- 가. 봉사대상
- 나. 봉사내용
- 다. 사회적 파급효과

4. 기타봉사업적

- 가. 봉사대상
- 나. 봉사내용
- 다. 사회적 파급효과

5. 기타 업적

- 가. 대상
- 나. 내용
- 다. 사회적 파급효과

3. 추천 동기 (1~2페이지)

※ 대표 의료봉사 업적을 중심으로 추천자 입장에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4. 증빙자료 목록

No.	제 목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증빙자료 목록만 추천서에 포함(증빙자료는 파일 또는 별도 제출 가능)

東亞日報

2013년 07월 16일 화요일 A27면 투데이

40여년간 39만명 무료 진료 브라쇠르 원장, 성천상 수상

벨기에 출신 마리 헬렌 브라쇠르(한국명 배현정·67·사진) 전진상의원 원장이 제1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성천상은 JW중외그룹의 창업자인 고(故) 이기석 사장의 선공후사 정신을 기리고 참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공익재단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제정했다.

브라쇠르 원장은 40여 년 동안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저소득층 39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첫 수상자가 됐다. 상금은 1억 원.

브라쇠르 원장이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것은 1972년. 고향 벨기에에서 간호대를 졸업하고 국제가톨릭형제회 단원 신분으로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고 김수환 추기경의 제안으로



료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왔다. 1999년에는 서울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기도 했다.

심사를 총괄한 이성낙 성천상위원회 위원장(가천대 의대 명예총장)은 “이기석 사장은 1959년 당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수액제를 국산화하는 등 국내 의약품 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데 헌신했다. 브라쇠르 원장은 그런 이 사장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참 의료인”이라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8월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국일보

2013년 07월 16일 화요일 A22면 사람들

관자촌에 무료진료소 40년 ‘시흥동 슈바이처’

‘성천상’ 1회 수상자 벨기에 출신 배현정 원장

시흥에 ‘전진상’ 세워 인술 베풀며 장학금도

제약회사인 JW중외그룹의 공익재단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이 제정한 제1회 성천상 수상자로 벨기에 출신의 배현정(본명 마리 헬렌 브라쇠르·67) 전진상의원 원장이 선정됐다고 재단 측이 15일 발표했다.

재단 측은 “배 원장이 고국 벨기에를 떠나 한국에서 40여년간 무료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소외 계층에게 인술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벨기에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배 원

장은 1972년 봉사단체인 국제가톨릭형제회 단원으로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게 지금껏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게 된 계기가 됐다.

그는 고 김수환 추기경의 추천으로 75년 서울 시흥동 관자촌에 무료진료소인 ‘전진상(全眞常) 가정복지센터’를 세우고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봉사 활동을 하면서도 간호사로서 진료소 운영에 한계를 느낀 배 원장은 81년 국내 의대에 편입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진료와 호스피스 활동으로 형편이 어려운 39만 여명에게 인술을 베풀었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성낙(가천의과대학 명예총장) 성천상위원회 위원장은 “배 원장이 자신

의 평생을 바쳐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이웃을 돌본 점이 성천 이기석 사장의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단은 다음달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천상 시상식을 열어 배 원장에게 상패와 상금 1억원을 수여한다.

성천상은 JW중외그룹 창업자인 고 성천 이기석 사장의 선공후사 정신을 기려 사회적인 귀감이 되는 참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했다. 성천은 1945년 조선중외제약소(현 JW중외제약)를 창업한 뒤 국민 건강에 필요한 의약품이라면 이윤이 박하더라도 생산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59년 당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수액제를 국산화하는 등 국내 치료의약품 산업의 초석을 다진 1세대 제약인이다. 연합뉴스



‘시흥동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 제1회 성천상 수상자로 결정된 그는 “의료 봉사는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중외학술복지재단 제공

<제2회 성천상 수상자 : 국립소록도병원 오동찬 의료부장>

중양일보

2014년 07월 15일 화요일 022면 사회

한센인 아랫입술 재건 수술법 만든 소록도 천사

<국립소록도병원 치과의>

오동찬씨, JW중외그룹 성천상

오동찬(46·사진)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치과 전문의)은 조선대 치과대학 졸업후 1995년 공중보건의로 국립소록도병원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말기암 환자였던 어머니의 만류에도 “1년만 봉사하고 오겠다”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약속했던 1년이 지금까지 이어져 지난 20년간 1600여 명의 한센인을 치료했다.

그는 특히 한센병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해 직접 ‘아랫입술 재건 수술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다. 오 부장은 “슈바이처 같은 의사를 꿈꾸며 치과대학에 진학했었다”며 “아랫입술이 처져 음식을 씹지 못하는 환자들을 그냥 두고 나올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씹지 못하고, 양치질도 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보며 입술 성형수술을 연구했다. 한



센인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라 참고할 교과서도 연구논문도 없었다. 홀로 공부해 국내 최초로 입술 성형수술 방법을 개발했고, 400여 명의 한센인에게 입술을 되찾아 줬다.

오 부장은 2005년부터는 해외의 한센병 환자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매년 여름 휴가 때마다 캄보디아·몽골·필리핀 등 한센병 환자가 많은 국가를 찾아 봉사 활동을 펼치는 그는 “한센병 환자들에게서 내가 배우고, 받은 게 많다”고 말했다.

JW중외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오 부장을 제2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성천상은 JW중외그룹 창업자인 고(故) 이기석 사장의 뜻을 기려 음지에서 헌신적인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는 의료인에게 주는 상이다. 상금은 1억원이며, 시상식은 다음 달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다.

박수련 기자

africasun@joongang.co.kr

朝鮮日報

2014년 07월 15일 화요일 A27면 사람들

한센인 소록도에서 ‘나홀로 의사’ 12년

소록도병원 오동찬 부장 ‘성천賞’

조선대 치대를 막 졸업한 젊은 의사가 1995년 봄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에 공중보건의로 지원했다. 난소암 말기이던 어머니가 극구 만류했지만, 아들은 “딱 1년만 근무하고 오겠다”고 했다.

아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후 20년째 국립소록도병원을 지켜온 오동찬(46) 의료부장이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 JW중외그룹 회장)은 제2회 성천상 수상자로 오동찬 부장을 선정했다. 성천상은 JW



중외그룹 창업자인 고(故) 성천 이기석 사장을 기려 지난해 제정됐다.

“공중보건의 1년 근무가 끝나도 집으로 가지 않으니깐 어머니가 소록도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엄마 대하듯 환자를 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소록도를 다녀간 두 달 뒤 세상을 떠났다. 불과 7년 전까지만 해도 소록도병원에 그 말고는 다른 의사가 없었다. 치과의사인 그가 내과와 외과 치료도 맡았었다. 이영환 기자

<제3회 성천상 수상자 :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 조병국 명예원장>

東亞日報

2015년 07월 14일 화요일 A24면 투데이

반백년 6만여명 돌본 '고아들의 의사'

조병국 홀트아동복지회 병원 명예원장 '성천상' 수상

JW중외그룹은 50년 동안 6만 명이 넘는 고아를 보살펴 온 조병국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 명예원장(82·사진)을 '제3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성천상은 고이석 중외그룹 창업자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JW중외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한 의료인에게 주는 상이다.

1958년 연세대 의과대를 졸업한 조 명예원장은 1962년부터 15년간 서울시립아동병원 소아과에 근무하며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1976년부터는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으



로 자리를 옮겨 6만여 명의 입양 예정 고아들의 건강을 챙겼다. 그는 아이가 입양가정에 보내지기 전 예방접종을 하는 등 아이가 건강한지 확인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

수상 소식을 전달받은 조 명예원장은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이를 돌보는 일이 어느새 삶의 일부가 되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8월 24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朝鮮日報

2015년 07월 14일 화요일 A23면 사람들

50년간 6만명 돌본 '입양아의 주치의'



'성천賞' 받는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 조병국 명예원장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을 치료하고 수술해야 하는데 1960~70년대 우리나라에는 돈이 없었다. 젊은 여의사는 미국·독일·노르웨이에서 의료 기부를 받았다고 백방으로 돌아다녔다. 해외 기부자들에게 얼마나 매달렸는지 '국제 거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래도 아이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의 사망진단서를 하루에도 몇 장씩 써야 하던 시절이다.

'한국 입양아의 주치의'로 불리는 조병국(82·사진)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 명예원장이 13일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 JW중외그룹 회장)이 주는 제3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 명예원장은 50여년 동안 새 부모를 찾아가는 입양아 6만여명을 치료했다. 성천상은 JW중외그룹 창업자인 고(故) 성천 이기석 사장을 기려 2013년 제정됐다.

1958년 연세대 의과대를 졸업한 조병국은 1962년부터 15년 동안 서울시립아동병원 소아과에 근무하면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1976년부터는 홀트아동복지회와 인연을 맺고 부속의원에서 입양아들의 치료에 헌신했다. 1993년 정년 퇴임했지만 후임자들이 격무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자 다시 돌아와 2008년까지 15년 동안 '전(前)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진료했다. 그는 "세상을 뜬 아이에게 제대로 된 수의(壽衣)도 입히지 못하고 장호지를 대충 잘라 덮어 놓던 시절도 있었다"며 "외국에 하도 월조를 많이 요청하다 보니 정부로부터 '자제하라'는 경고까지 받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다"고 했다.

지원 요청 찾아 '국제거지' 별명 홀트 17년 근무 후 퇴임하고도 후임자들 못 버티자 돌아와 15년 "어엿하게 큰 아이들 보면 뿌듯"

다. 의대 동창인 남편은 그를 적극 도왔다. 아이들이 동전이나 단추를 삼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남편이 있는 한양대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런 조 명예원장도 해외 입양을 '아기 수출'이라며 무조건 비난할 때는 힘이 빠졌다. "집 없고 병든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부모와 가정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국내에 지원하는 부모가 없으니 해외로 눈을 돌렸을 뿐입니다." 나중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입양 서류에

'~에 버려졌음' 대신 '~에서 발견됐음'이라고 기록하던 그다.

그래도 아이들은 큰 기쁨을 안겨줬다. 미국으로 입양된 한 뇌성마비 소년은 소아 재활의학 전문의가 돼 국제학회에서 그를 찾아왔다. 나중에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아이는 미국에서 의수(義手) 사업을 하는 양부모를 만나 컴퓨터 전문가로 컸다. 척추 기형으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것이 라던 아이는 대학에 들어가 밴드의 리더가 되기도 했다. 그는 "양부모의 도움도 컸겠지만 아이들 스스로 노력해서 앞길을 연 것"이라며 "지금껏 내가 한 일이 부끄럽지 않게 해줘서 고맙습니다"고 했다.

조 명예원장은 팔순 고령인 지금도 홀트 입산복지타운에서 장애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장애가 심해 입양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사는 곳이다.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마리 홀트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도 돌보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 창립자인 해리 홀트의 딸이다.

"할머니와 같이 살아보셨어요? 할머니가 손자들 돌보는 생활 그대로예요. 아이들 이부자리 정리하고, 아프면 봐주고 그렇게 살아요." 중외학술복지재단은 다음 달 2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성천상 시상식을 갖는다.

이영남 과학전문기자